

승려만을 포섭하여 천태종 교단을 조직한 결과 선종교단은 천태종으로 개종한 승려들과 선종을 고수하려는 승려들로 양분되고 말았다. 선종을 고수한 승려들이 의천의 死後에 다시 대두하면서 그 교단의 이름을 천태종에 대항하는 의미로 禪門九山 대신에 새로이 曹溪宗이라고 칭하게 되었다.¹⁶⁾ 그 결과 신라말 이래의 禪門九山은 천태종 창립으로 인하여 天台宗과 曹溪宗으로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의천은 천태종 교단의 조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여러 차례 天台學을 강의함으로써 교리체계의 마련을 통한 종지의 정립에 노력하고 있었다. 『大覺國師文集』에서만도 3번의 강의 사실이 확인되는데, 첫번째는 肅宗 2년(1097) 5월 國淸寺의 준공기념으로 천태종의 근본경전인 『法華經』의 강의를 이루어졌고, 다음 肅宗 4년(1099) 9월에는 三角山의 香林寺에서 荊溪湛然의 『本迹十妙不二門』을 강의하였다.¹⁷⁾ 그 다음 肅宗 5년(1100) 6월에는 國淸

16) 종파의 이름은 화엄종이나 법상종 등과 같이 근본경전의 이름이나 근본종지의 내용에서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예외적으로 천태종이나 조계종의 두 종파만은 중국의 산 이름이나 지명에서 취한 것이다. 천태산은 중국 浙江省 台州에 소재한 산의 이름으로 천태종의 근본 도량인 國淸寺가 위치하고 있으며, 천태종을 개창한 智顛가 이곳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天台大師라고 불려졌다. 그리고 曹溪라는 명칭은 중국 廣東省 韶州 雙峰山 및 寶林寺가 자리했던 곳의 지명으로 曹候村의 시내(溪)라는 말인데, 이곳에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창립자인 六祖惠能이 머물러서 선종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일러 曹溪大師라고 칭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불교사에서는 曹溪라는 이름은 선종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을 뿐 구체적인 종파의 이름은 아니었으나, 한국불교사에서는 선종교단의 실제적인 종파명으로 사용되었다. 조계종이라는 명칭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불교사학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필자로서는 의천에 의한 천태종의 창립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천태종의 창립으로 禪門九山이 양분하게 되자, 천태종에 가담하지 않은 선승들에 의해서 천태종에 대응되는 명칭으로 曹溪宗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金映遂,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 9, 1938 ; 金煥泰, 「九山禪門 形成과 曹溪宗의 展開」 『韓國史論』 20, 1990 참조).

17) 荊溪湛然(711~782)은 唐代 후기 천태학을 크게 진흥시킨과 함께 華嚴化로의 단서를 얻 인물로 유명한데, 그의 교학의 주요 내용으로는 法華至上主義, 性具說과 性惡說, 無情有性說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大乘起信論』의 眞如隨緣의 사상에 의해서 萬法의 眞實性을 논하였고, 『華嚴經』의 사상에 기초하여 法과 佛의 一體性,

寺에서 천태학의 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天台智顓의 『法華玄義』 10권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처음으로 天台宗의 宗選을 실시하여 奉恩寺에서 100명의 학생을 뽑아 천태종의 經論 120권으로 시험하여 그 가운데 40여인을 합격시킴으로써 교단체제에서 천태종의 개창을 공인받기에 이르렀다. 이로 보아 의천은 천태교학의 진흥과 교단의 정비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천의 관심은 천태종의 教學에만 한정되었고, 止觀은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의천은 천태종의 개창에 앞서 화엄종에서의 教觀并修를 주장하면서 均如로 대표되는 고려의 전통적인 화엄학을 비판하였다. 특히 의천은 宋에 가서 淨源에게 화엄을 수학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화엄종 측의 제자들에게 教學과 觀門, 즉 학문적 이론과 실천 수행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⁸⁾ 그런데 의천에 의해서 새로 제기된 教觀并修說은 고려 화엄종을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킨 의의를 가진 것이었으나, 의천의 觀門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수행방법이 결여된 觀念性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원래 화엄종의 實踐門으로서의 法界觀은 그 究竟이 事事無碍法界인데, 哲學思想으로서는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究竟의 인 발달을 보인 것이지만, 宗教的 實踐이라는 면에서는 취약한 일면이 없지 않았다. 화엄종에서의 觀門의 觀念性을 극복하는 방법은 宗密과 같은 적극적

法性和 佛法의 一義性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無情有性說도 근본적으로는 『大乘起信論』의 唯心論의 世界觀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교학은 결과적으로 천태교학과 화엄교학의 사이를 크게 좁힌 것으로 평가된다. 화엄종의 입장에서 천태종을 새로 개창하면서 두 교학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던 의천에게 湛然의 교학은 당연히 주목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는 湛然의 저술을 다량 수집하여 편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자신이 『法華經』, 『法華玄義』와 함께 湛然의 『天台本迹十妙不二門』을 우선하여 강의한 것도 湛然의 교학을 중요시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의천의 불교의 祖師說로서 화엄의 九祖說과 천태의 九祖說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에는 화엄종에서의 淸涼澄觀과 함께 천태종에서의 荊溪湛然을 각기 화엄종과 천태종의 최종의 조사로서 중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拙稿, 「義天이 均如를 비판한 이유」 『亞細亞에 있어서 華嚴의 位相』, pp. 147-175, 1991.

인 禪教一致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나, 禪宗 자체를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않은 의천으로서 宗密의 禪教一致說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앞선 澄觀의 과도기적인 화엄의 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여하튼 의천은 화엄의 實踐門인 法界觀을 가지고서는 철저한 實踐佛敎인 禪宗을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의천은 화엄의 法界觀 대신에 그보다 實踐性이 강한 천태종의 止觀을 가지고 선종을 포섭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천은 천태종의 止觀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추구하지는 못함으로써 不立文字 敎外別傳을 주장하는 達磨 계통의 선종을 부인하면서 禪門九山の 선승의 일부를 천태종으로 개종시키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으나, 불교의 내용에서는 이름만 禪宗에서 天台宗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불교의 실천수행의 방법까지 天台止觀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의천이 창립한 천태종은 敎觀并修를 그 종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뒤 교학의 연구마저 중단됨으로써 실제적인 불교 내용은 선종의 그것과 구별되는 正體性을 확립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천태종 교단의 모순은 의천이 세상을 떠난 뒤 曹溪宗이 크게 융성하게 됨으로서 교단의 진로에 어려움을 겪지않을 수 없게 하였다.

五

의천의 천태종 개창으로 禪門九山이 천태종과 조계종으로 양분된 결과, 교단체제는 고려초기의 화엄종과 법상종, 그리고 禪門九山으로 이루어졌던 3개의 종단체제에서, 이제 교종 계통의 華嚴宗과 法相宗, 선종 계통의 天台宗과 曹溪宗 등 4개 종단 중심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천태종의 위상은 이러한 4개 종단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의천이 세상을 떠난지 4년 만인 1105년 10월에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肅宗마저 죽음으로써 천태종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달인 11월 천태종의 개창에 직접적으로 반발하였던 법상종에 속한 玄化寺의 德昌이 王師로 책봉되고, 이어 睿宗 2년(1107)에는 의천과 교류하면서도 천태종의 개창에는 끝까지 참여를 거부하였던 曇眞이 다시 王師로 책봉되고 있었으며, 또한 睿宗 7년(1112)에는 숙종의 원찰인 天壽寺의 공역이 중단된과 함께 의천의 동생인 導生僧統 窺가 지방으로 유배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 등은 義天의 영향력의 감퇴와 천태종 교단의 위축을 의미한 것이었다. 불교계에서의 이러한 추세는 다음의 仁宗대에도 이어져 그 즉위년(1122)에 법상종의 승려로 추정되는 德緣이 國師, 그리고 의천의 수차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禪과 講을 交濫할 수 없다.” 고 하여 선종을 고수한 學一이 王師로 각기 책봉되고 있었다. 이로써 예종대와 인종대에는 중앙의 불교계에서 천태종의 개창에 반발한 법상종과 선종 안에서 천태종과 경쟁 관계를 이루게 되었던 조계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반면에 의천 계통인 화엄종과 천태종은 크게 위축됨을 면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천태종 교단의 위기 상황은 교단 밖에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교단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즉 의천이 세상을 떠난지 얼마 아니되어 천태종 교단은 法眼宗 계통의 승려들과 直投弟子들의 두 파로 나뉘어 대립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법안종 계통의 五法眷의 승려들은 원래부터 근거로 삼은 本山의 사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기 본산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중앙의 교단에는 의천에게 直投한 門下의 弟子들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肅宗은 9년(1104)에 앞의 五法眷과 直投弟子를 합한 六法眷 가운데, 直投弟子들을 가장 首位에 두게 함으로써 正統으로 인정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여 주었다. 그 결과 이들이 이후 천태종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 중심으로 천태종의 正體性을 확립하고, 아울러 의천 계통으로서의 正統性을 과시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 “天台始祖大覺國師碑”의 건립운동이었다. 그리하여 仁宗 7년(1129)에 의천의 천태종 개창의 업적을 기리는 “海東天台始祖碑”를 南嵩山寺에 건립하기로 인종의 허락을 받고, 인종 9년(1131)에 林存에게 비문 찬술을 명하고, 마침내 인종 15년(1137)에 비석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비석을 세우기에 앞서 인종 14년(1136)에 中書門下省에서 論功하여 왕의 명을 받아 大覺國師碑의 陰記에 천태종 계통의 의천의 法孫들의 명단을 기록케 하였는데, 德麟·翼宗·景蘭·連妙 등 의천에게 直投한 4인의 法孫들로 국한되었다.¹⁹⁾ 이 결과 이들 4인의 법손들이 천태종의 주류를 이루어 武人執權 초기까지 이어지면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翼宗 - 教雄 - 德素로 이어지는 계통이 가장 번성하여 明宗 원년(1171)에는 德素가 천태종 승려로서는 최초로 王師에 책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武人執權期가 되면서 화엄종·법상종·천태종·조계종 등 불교의 각 종파에서 제각기 커다란 변화를 겪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불교계의 주류가 教宗에서 禪宗으로 바뀌어가는 추세 속에서 禪宗의 색채를 불식하고 천태종으로서의 正體性을 확립하려고 한 인물이 圓妙了世(1163~1245)였다. 그는 普賢道場을 결성하여 法華三昧를 실천하고 往生極樂淨土를 서원하였는데, 이것은 그대로 순수한 天台懺法의 실천행이었다. 요세는 매일 禪觀을 닦고 『法華經』을 독송하고 「准提神呪」 1천번, 阿彌陀佛 1만번을 念하는 등 천태종의

19) 天台始祖大覺國師碑의 陰記에 德麟·翼宗·景蘭·連妙 등 4인의 법손들의 명단만을 기록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천태종 교단 안에서의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의천의 같은 문도라는 입장에서 화엄종 승려들과의 경쟁의식, 그리고 같은 선종에 속한 종파라는 점에서 조계종 승려들과의 대립의식 등의 종파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천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초기에 知訥의 修禪社에도 한때 참가한 적이 있었으나, 얼마 아니되어 독립하여 康津의 萬德山에서 白蓮社를 별도로 조직하고 知訥의 定慧雙修의 실천방법에 맞서 철저한 天台三昧懺法의 실천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天台智顓의 「天台三大部」를 節要하여 판각 유통시키고, 또한 四明知禮의 『觀無量壽經疏妙宗鈔』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了世가 智顓 당시의 原始天台學, 또는 唐末 이후의 華嚴화된 천태학을 비판하고 原始天台學에로의 복귀를 주장하던 知禮의 천태학을 계승함으로써 華嚴宗과 曹溪宗, 특히 당시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된 曹溪宗의 修禪社 교단에 대하여 천태종으로서의 正體性을 확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了世의 白蓮社 佛教는 義天의 천태종과 비교할 때 같은 이름의 천태종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 교학이나 신앙의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었다. 義天의 천태종은 敎學的인 면에서 화엄과의 조화를 모색하였던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華嚴화된 천태학으로서의 宋代 山外派의 天台學에 비교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實踐門에서는 천태의 止觀을 철저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禪宗의 修禪方法을 그 내용으로 간직한, 이름 뿐인 천태종이었던 데 반하여, 了世의 천태종은 천태종의 正體性을 확립하여 순수한 천태의 교학과 실천방법에 철저하려는 宋初의 知禮를 대표로 하는 山家派의 天台學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宋初의 知禮의 불교와 了世의 그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지도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자 가운데 知禮의 그것이 華嚴화된 山外派의 天台를 비판하여 천태교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것을 주로 의도하는 것이었던 데 비하여,²⁰⁾ 了世의 그것은 순수한 천태의 실천

20) 宋대의 천태종에서는 천태종 내부에서의 山家派와 山外派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종과 천태종의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두 종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쟁의 중심적인 주제는 “立祖相承”에 관한 것이었는데, 雲門宗의 契嵩과 天台宗의 子昉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쟁이 가장 유명하였으며, 神智從義도 선종의 法統說을 공격한 바 있었다. 知禮도 선종과의 논쟁에 참여하였는데, 天童寺 子凝과의 사이에 서로 논란을 왕복하였다. 그러나 知禮의 경우는 山外派의 천태를 비판하여 智顓敎學에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의식하였던 것이

신앙의 정립을 통하여 曹溪宗의 修禪社에 대한 正體性的 확립을 의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了世의 白蓮社 佛教가 더욱 實踐性이 강한 반면에 知禮敎學에 비견될 수 있는 방대한 교학체계를 수립해 주지는 못하고 말았다는 차이점이 나타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了世의 白蓮結社를 통한 불교의 혁신 운동은 의천의 화엄종의 입장에서 창립된 천태종, 그리고 宋의 山外派의 화엄화단 천태학을 뛰어넘어 智顓 당시의 原始천태학, 또는 知禮의 교학으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천 이후의 고려 천태종이 그 내용면에서 선종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천태의 실천신앙으로서의 正體性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개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천의 불교과 요세의 그것 사이에는 천태교학의 내용이나 실천신앙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교의 사회적인 성격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의천은 文宗의 넷째 아들로서 왕실 출신이었으며, 그의 불교 활동도 중앙의 불교계를 무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천태종의 창립을 통한 교단체제의 개편을 시도하였는데, 肅宗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추진된 것이었다. 그 결과 의천 불교의 사회적인 성격은 극히 귀족적이었으며, 또한 정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으로써 왕실과 문벌귀족 사이의 정치싸움에 휘말리어 그의 불교활동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지않은 파란곡절을 겪지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하여 요세는 그의 아버지가 陝川 지역의 戶長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지방의 토호 출신이었으며, 그뒤의 불교활동도 주로 지방인을 대상으로 전개하였다. 그는 무인집권기인 1185년(23세)에 승과에 합격하고, 이어 1198년 봄에 개경의 천태종 사찰인 高峯寺에서 개최된 법회에 참석하였다가 명리의 추구에 몰두하는 불교계에 실망하여 지방에 내려가 실천신앙에 전념하였다. 그는 한때 知訥의 修禪結社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얼마 아니되어 지눌과 갈라졌다. 그는 뒷날 독자적으로 白蓮社를 조직하고 法華懺法과 아미타신앙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귀족화되고 세속화된 불교계를 비판하고 국가체제 속에

며, 선종과의 논쟁이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었다.

편입된 교단체제에서 벗어나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을 무대로 하여 불교의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던 점에서는 知訥과 了世의 불교가 공통적이었으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눌의 불교보다도 요세의 그것이 더욱 서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지눌이 고려중기 曹溪宗 전통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了世도 의천에 의해서 창립된 천태종의 전통을 부인하고 새로운 불교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崔滋가 찬술한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에 의하면,

“고려에 있어서는 玄光, 義通, 諦觀, 德善, 智宗, 義天의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교리를 물어 천태종의 三觀의 뜻을 배워서 국내에 전도하여 우리나라를 복되게 한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으나, 普賢道場을 열고 널리 불경을 읽도록 권하기까지 한 일은 없었다. 오직 대사가 종교가 쇠해 가던 때를 당하여 크게 法幢을 세워 법을 듣지 못하였던 세속을 놀라게 하여 뿌리 없던 信心을 서게 하고, 祖師의 교리가 다시 일어나 천하에 선포하게 하였으니, 本願力으로 말세에 태어나서 如來의 시킨 바 되어 여래의 일을 행하기를 어찌 이렇게 했겠는가?”

라고 하여 白蓮社의 교단에서 요세를 쇠퇴한 불교를 부흥시킨 인물로 찬양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문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천태종을 개창한 義天을 玄光·義通·諦觀·德善·智宗 등 의천에 앞서 천태종을 전해왔던 다른 승려들과 같이 나열하는데 그친 점이다. 이 점은 林存이 찬술한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에서 의천을 海東天台宗의 始祖로 추앙하고 있었던 사실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평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로써 백련사 교단에서는 의천을 그 이전의 다른 천태종 승려들과 구별하여 海東天台宗의 始祖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리고 요세의 불교가 의천의 천태종을 직접 계승한 것으로도 의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련사 교단에서의 이러한 고려 천태종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기반에는 의천의 불교와 요세의 그것 사이에 같은 천태종에 속하면서도 교학과 실천신앙,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의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던 점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었음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Ŭich'ŏn's Foundation of the Ch'ŏnt'ae Sect and its Relation to Song Dynasty's Tiantai Buddhism

Ch'oe Byong-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s part of a project to understand Korean Buddhist history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n Buddhism - coming after several studies on the thought of Wŏnhyo and Chinul - seeks to adopt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h'ŏnt'ae sect founded by Ŭich'ŏn. I considered therefore Ŭich'ŏn's activities within the background of East Asian Buddhism, and examined their relation to the Tiantai sect in China. At a time when the Hwaŏm and Pŏpsang sects were polarised and opposing each other, Ŭich'ŏn - though sticking fast to the Hwaŏm precepts - established a third sect, namely the Tiantai, with the objective of weakening the Sŏn sects (Nine Mountains) by attracting their monks to the newly founded Ch'ŏnt'ae. Due to Ŭich'ŏn's ideological background the ideals of "harmonization of the Ch'ŏnt'ae and Hwaŏm sects" from the doctrinal point of view, and of the "simultaneous cultivation of theory and practice" (kyogwan pyŏngsu) were both perceived as of the utmost importance. Therefore the process of adopting the Tiantai sect of the Song dynasty implied two aspects: while on one side it claimed officially to adopt the tenets of the orthodox Shanjia pai, on the other side in terms of content it was actually closer to the Shanwai pai, which was generally considered heretical and retained a strong Huayan influence. As the Ch'ŏnt'ae sect was based on a clergy exclusively composed of Sŏn masters, it remained Ch'ŏnt'ae only in name after the death of Ŭich'ŏn. Its contents and character were heavily laden with Sŏn elements. Thus, the establishment of the Ch'ŏnt'ae sect led to a division of the Sŏn sects of

Koryŏ into the Ch'ŏnt'a'e and the Chogye orders. Consequently, the Ch'ŏnt'a'e sect was thereafter officially classified as a Meditation sect also by the State. Yose (1153-1245) understood the problems of the Ch'ŏnt'a'e sect as deriving from its Sŏn character and tried to solve them through the adoption of the Tiantai teachings of Siming Zhili, a representative of the Tiantai sect during the early Song dynasty. He emphasized a type of faith centered on the Lotus Sutra and the Pure Land teachings, thereby trying to establish the true character of the Ch'ŏnt'a'e sect, as distinct from the Hwaŏm and Sŏn sects. In view of the above it seems obviou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doctrinal contents and historical character of the Ch'ŏnt'a'e sect of Ŭich'ŏn we need to adopt a comparative approach and analyse Ŭich'ŏn's Ch'ŏnt'a'e in conjunction with the Tiantai sect of China, and particularly that of the Song dynasty. We also need to mention that Japanese Tendai followed quite a different path of development. It came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esoteric Buddhism, while in Korea and China, as mentioned above, the Ch'ŏnt'a'e tradition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both the Hwaŏm and Sŏn doctrines.